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치) 본원은 전라북도 전주시 들사평로 61번자에 위치한다.		제3조(위치) 본원은 전라북도 전주시	들사평로	61에 위치한다.
제5조(학기) 본원의 교육연한은 연령별(만3,4,5세)로 1년으로 하며 제1학기는 3월 입학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 정하는 날 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학기) 본원의 교육연한은 연령별(3,4,5세)로 1년으로 하며 제1학기는 3월 입학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 정하는 날 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방학 중 방과후 과정) 본원은 학부모의 희망 여부에 따라 방학중 방과후 과정을 1일 7시간 이상 운영하며 방과후 과정 교사(기간제 및 강사)가 교육 및 보육을 담당한다.		제12조(방학 중 방과후 과정) 본원은 학부모의 희망 여부에 따라 방학중 방과후 과정을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며 방과후 과정 교사(기간제 및 강사)가 교육 및 보육을 담당한다.
제13조(입학 자격)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로 한다.		제13조(입학 자격)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3세	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로 한다.
제16조(퇴학 명령) 유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결석한 유아 2.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타 원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유아 3. 본인의 결정에 의해 퇴원했을 경우 본 학년도에 재입학 할 수 없음		제16조(퇴학 명령) 유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결석한 유아 2.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타 원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유아 3. <삭제>		
제17조(전입학) 정원이 부족할 경우 타지역에서 전 가족이 이주하는 유아에 한해 5월까지 전입학할 수 있다.			<삭제>	
제18조(수료)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된 유아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수료) 유치원 수업일수 최종일(학년도 종료일)까지 학적을 보유한 유아를 수료 처리한다. 다만, 학년도 시작 이후 유치원에 입학하여 유치원 수업일수 최종일까지 수료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유치원장의 재량으로 해당 유아의 수료를 처리한다.		
제19조(졸업) 만5세의 유아가 유치원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된 유아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졸업) 유치원 수업일수 최종일(학년도 종료일)까지 학적을 보유한 유아를 졸업 처리한다. 다만, 학년도 시작 이후 유치원에 입학하여 유치원 수업일수 최종일까지 졸업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유치원장의 재량으로 해당 유아의 졸업을 처리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20조(휴학) 휴학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할 수 있다. 휴학 기간이 종료되면 복학 처리하여야 한다.</p>
<p>제21조(취학유예자) 교육감이 정한 질병에 해당하거나 또한 학업성취가 불가능하고 심신이 허약한 자(즉, 신체적, 지적으로 발달에 장애가 있는 자)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제22조(납입금 및 기타 비용) 본원의 수업료는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에 관한 규칙에 의해 만3,4,5세아는 무상교육으로 납입금을 면제하고, 외국인 유아나 유아학비 지원이 3년이 지난 유아에 한하여 유아학비 지원금만큼 수익자 부담금을 납입한다.</p>	<p>제22조(납입금 및 기타 비용) 본원의 수업료는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에 관한 규칙에 의해 3,4,5세아는 무상교육으로 납입금을 면제하고, 유아학비 지원이 3년이 지난 유아에 한하여 유아학비 지원금만큼 수익자 부담금을 납입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7장 23조 ~ 33조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p>